

□ 전시 연출(안) 및 유물 목록

구분	제목	내용	전시방법	비고
도입	프로로그	· 공동기획전 소개	패널	
1부	옛 문헌과 지도에 나타난 독도	· 삼국시대 울릉도와 독도 · 고려시대 울릉도와 독도 ·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 · 안용복의 활동 · 영토관리제도, 수토제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패널(유물)	지도 박물관, 독도 박물관
2부	일본도 인정한 조선의 영토, 독도	· 에도 막부의 독도 인식 · 메이지 정부의 독도 인식 ·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패널(유물)	
3부	지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 조선 고지도 3점 · 서양 고지도 3점 · 일본 고지도 10점	유물, 패널	지도 박물관
4부	영상 ZONE	· 공동기획전 홍보 영상	동영상 (빔프로젝터)	독도 박물관
5부	체험코너	· 독도를 사랑하고 기억하기	스탬프, 퍼즐, 스티커 등	지도 박물관
마무리	에필로그	· 독도에 내 이름 남기기	방명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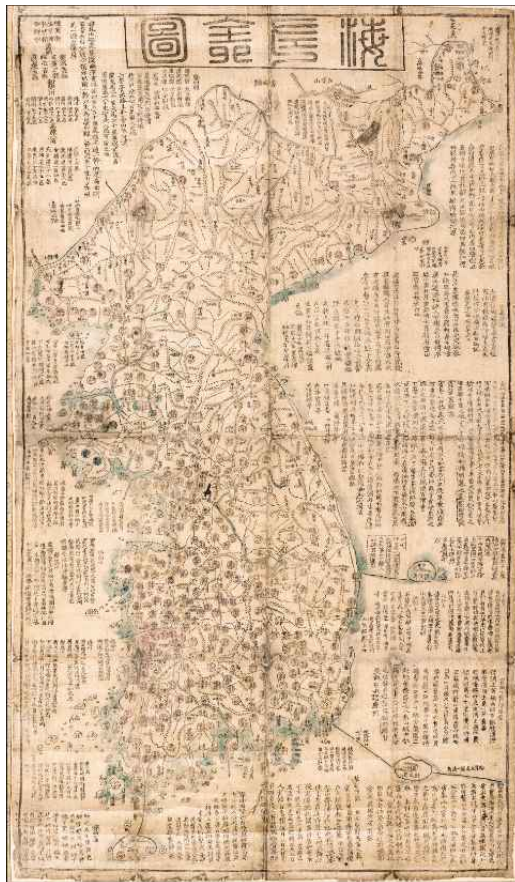
* 사업위치 : 국토발전전시관 1층 기획전시실 약 120㎡

* 전시 연출 순서 및 디자인 등은 제안사의 재량에 따라 변경 가능

<<지도박물관 소장 유물 목록>>

구분	명 칭	년 대	크 기	내 용	비 고	
1	해좌전도	19세기	58×100	독도	축자	朝
2	천하총도	18세기	22×37	독도	1권	朝
3	천하지도서	18세기	18.5×30.5	독도	1권	朝
4	중국통사 4권	1735년	30×44	독도	1권	西
5	Histoire Universelle	1763년	20×26	독도	1권	西
6	삼국통람도설(불어판)	1832년	26×33	독도	2권	西
7	삼국통람도설	1785년	52.5×79	독도	6권	日
8	청조일통지도	1835년	62×67	독도	날장	日
9	강호대절용해내장	1863년	19×26.5	독도	2권	日
10	신각대일본전도	1864년	107×73.5	독도	날장	日
11	대일본국세도	1866년	11×17	독도, 조선해	날장	日
12	조선국세견전도	1873년	105×71.5	독도	날장	日
13	조선국전도	1894년	56×39	독도	날장	日
14	신각 일본여지로정전도	19세기	128×82	독도	날장	日
15	신정만국전도	1810년	199×114	조선해	날장	日
16	환해향로신도	1862년	183.5×101	조선해	날장	日

1. 해좌전도, 19세기, 58×100cm



해좌전도는 조선(朝鮮) 전역을 그린 전도(全圖)로 지도(地圖)와 설명이 한 쪽에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도를 보면 행정구역·군영·도로·수로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군현의 연혁을 비롯하여 주요 섬들의 역사와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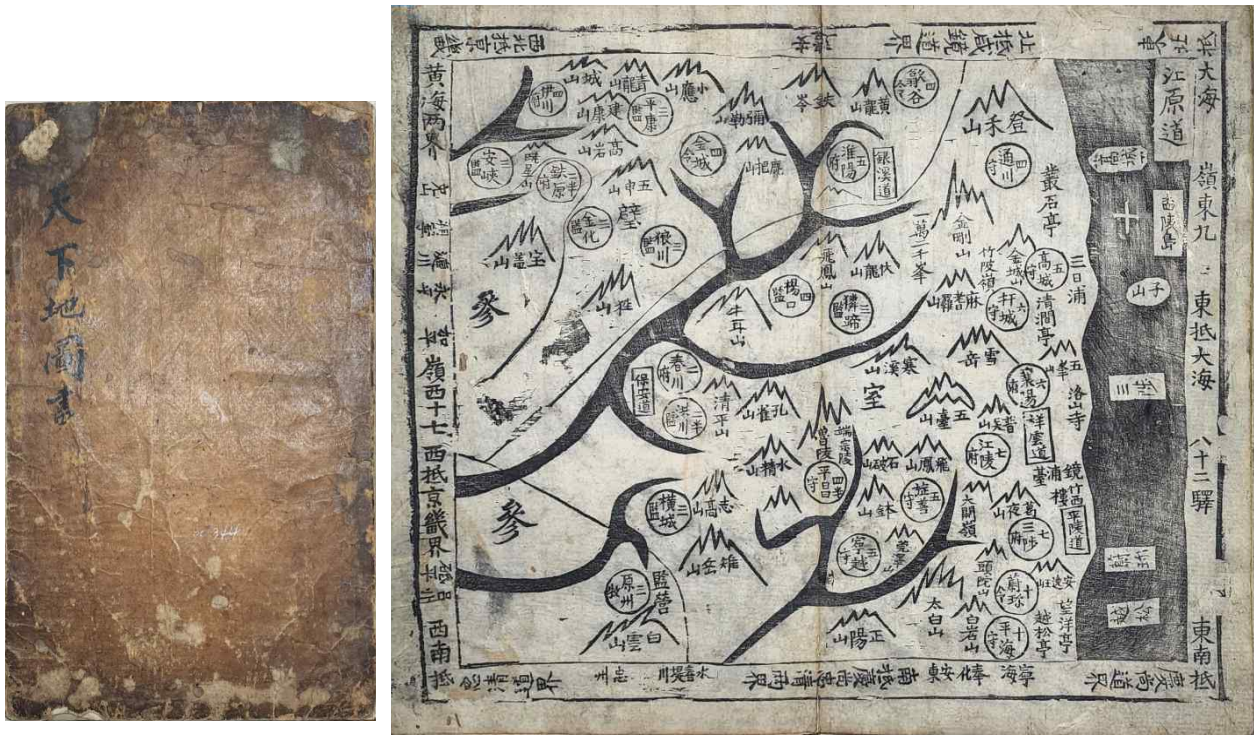
동해(東海)에 위치한 울릉도(鬱陵島)를 보면 섬 가운데 중봉(中峯)을 표기하였고, 독도(獨島)는 울릉도 우측에 우산(于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2. 천하총도(天下總圖), 18세기, 22×3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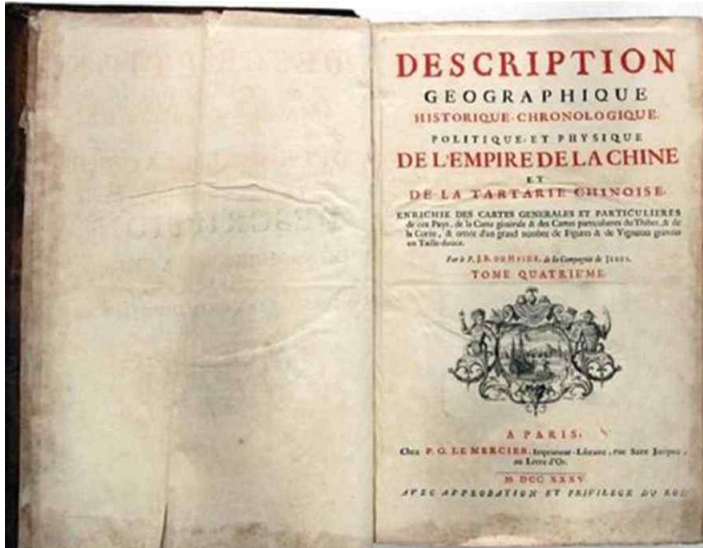
지도첩의 제목은 천하총도(天下總圖)라고 되어 있으나 조선시대 전통적인 팔도지도첩의 형태와 순서를 담고 있다. 특히 강원도(25官) 지도를 보면 동해(東海)에 울릉도(鬱陵島)와 함께 우산(于山:독도의 다른 이름)을 표기하여 독도(獨島)가 강원도(江原道) 소관임을 지도에 나타내고 있다.

3. 천하지도서(天下地圖書), 18세기, 18.5×3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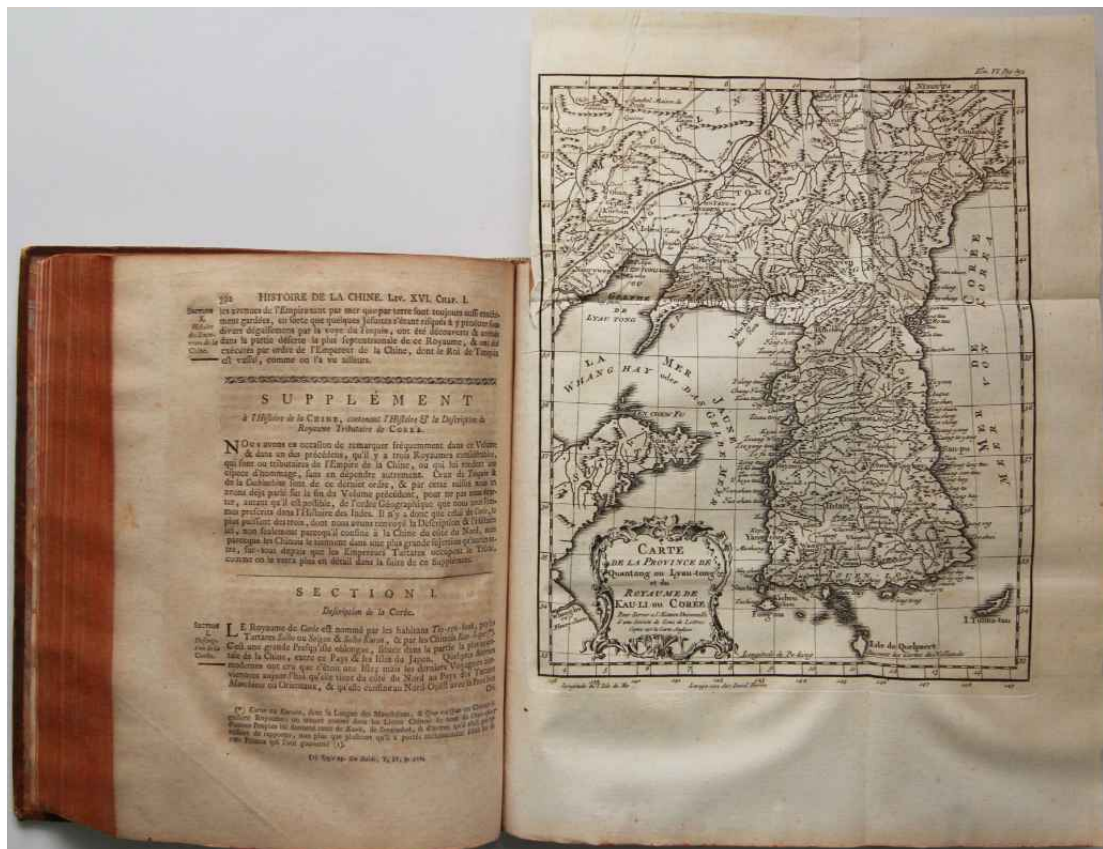
지도첩의 제목은 천하지도서(天下地圖書)라고 되어 있으나 조선시대 전통적인 팔도지도첩의 형태와 순서를 담고 있다. 특히 강원도(26官) 지도를 보면 동해(東海)에 울릉도(盍陵島:盍은鬱의俗字)와 함께 자산(子山:독도의 다른 이름)을 표기하여 독도(獨島)가 강원도(江原道) 소관임을 지도에 나타내고 있다.

4. 중국통사 4권, 1735년, 30×4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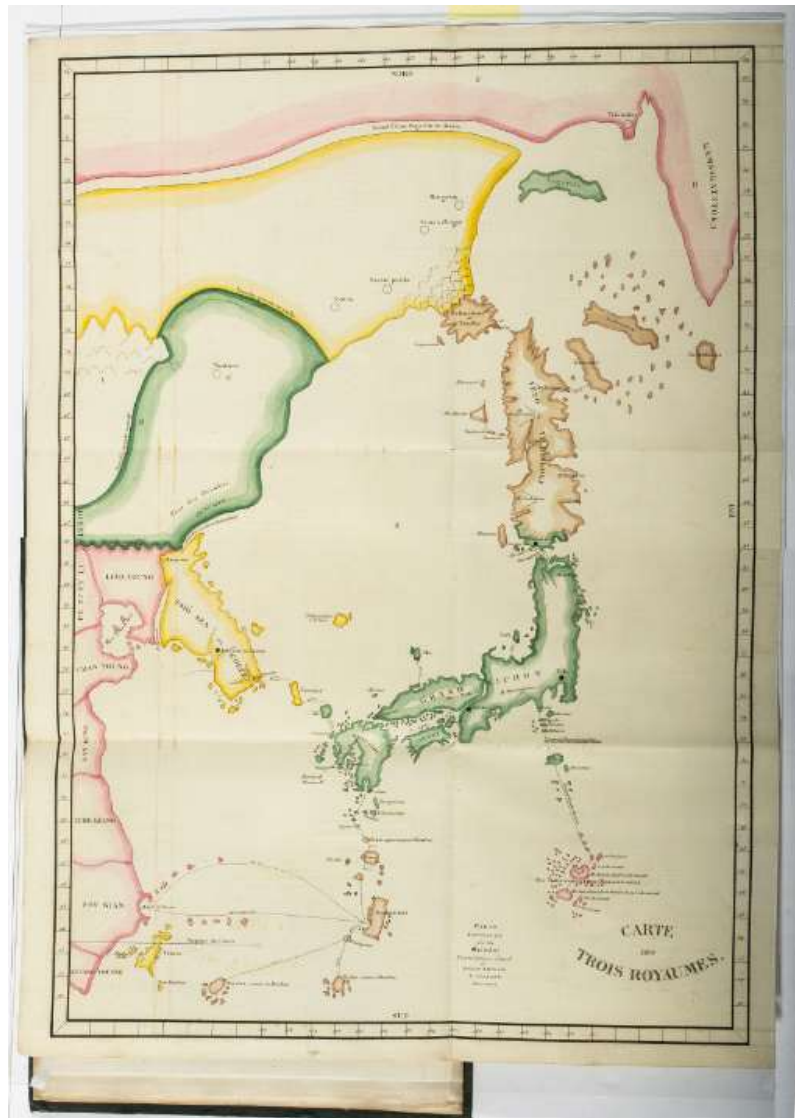
1735년 프랑스 예수회 신부 뒤알드(J. B. Du Halde)가 집필한 『중국통사』의 마지막 권(卷)이다. 이 책에 수록된 지도들은 중국 강희제(姜熙齊)가 제작한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바탕으로 프랑스 지도학자 당빌(J. B. Bourguignon D'Anville)이 제작한 지도들이다. 특히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EE)』를 보면 동해(東海)에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를 한반도 동해안에 아주 가깝게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두 섬이 조선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 섬의 이름을 울릉도는 관링타오(Fan-ling-tao), 독도는 찬찬타오(Tchian-chan-tao)로 표기한 이유는, 울릉도(鬱陵島)를 범릉도(範陵島)로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표기한 중국 측의 발음을 표기했기 때문이다.

5. Histoire Universelle, 1763년, 20×26cm



176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발간된 Histoire Universelle(역사 통론)는 역사지리 교양서이다. 저자는 Arkstee et Merkus 이며, 프랑스어로 출판되었다. 내용을 보면 중국, 조선, 일본 등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역사와 지도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중국 왕국지도’와, ‘조선왕국지도’를 보면 동해를 ‘한국해(MER DE COREE)’로 표기하고 있고, 조선왕국지도에서는 ‘울릉도(Fang ling tau)’와 ‘독도(Chiang san tau)’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18세기 서양고지도들의 전형적인 형태와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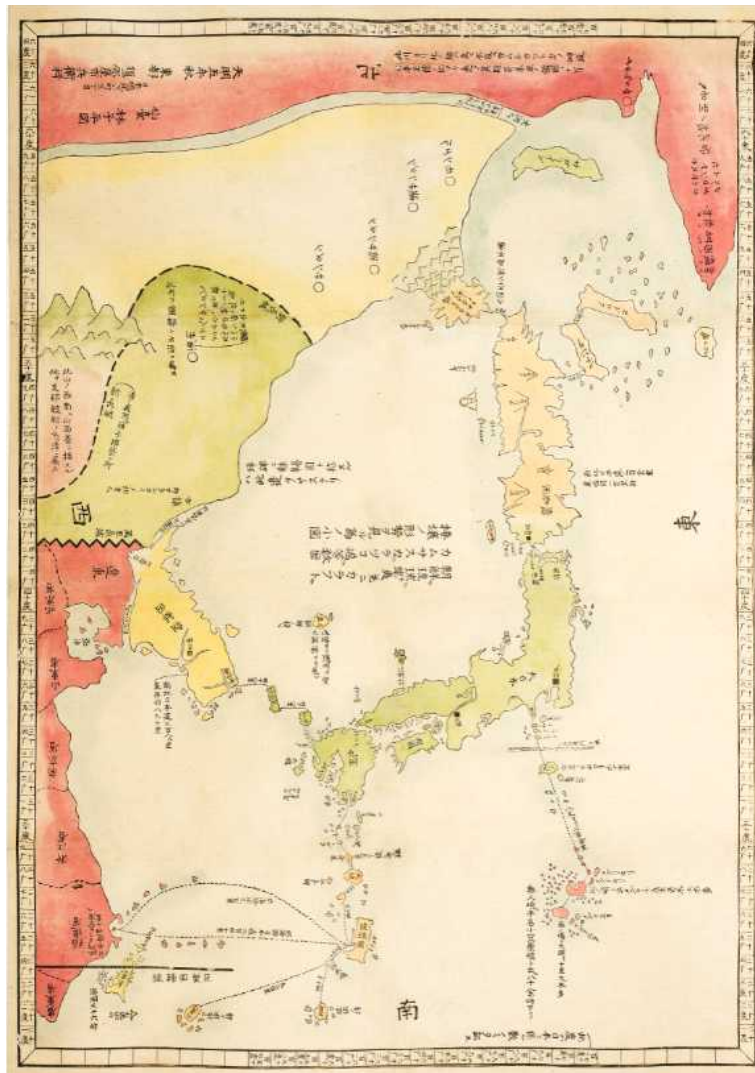
6. 삼국통람도설(프랑스어판), 1832년, 26×33cm



독일인 클라프로드(Klaproth, Heinrich J.)가 1832년에 제작한 『Carte des Trois Royaumes』(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이다.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 제작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을 번역하면서 첨부한 지도로 언어는 프랑스어인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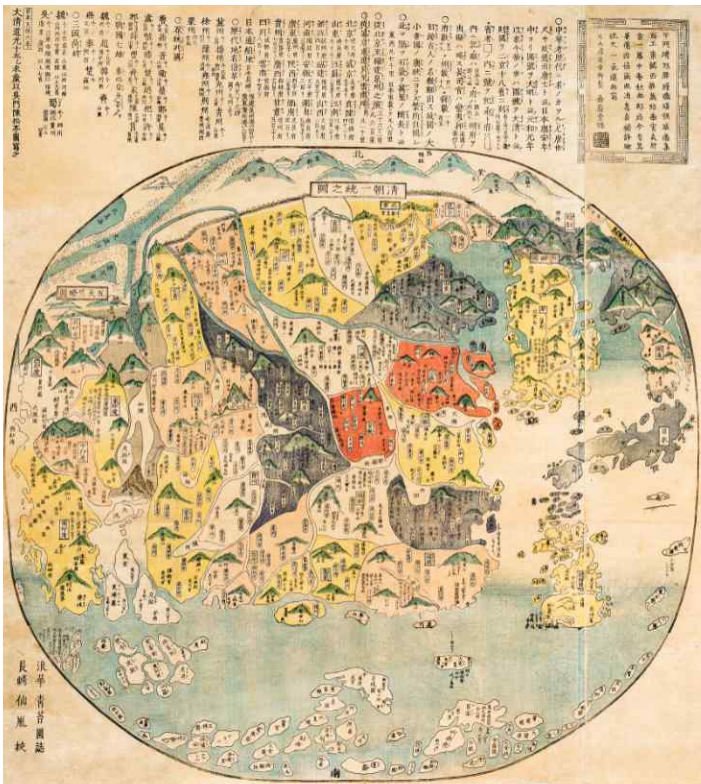
원 제작자인 하야시의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를 따라 조선의 영토는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고,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 역시 노란색으로 '朝鮮ノ持也(조선의 소유)'라고 적혀있다. 클라프로드의 프랑스어판에는 『Takenosima á la Corée (다케노시마는 조선의 것)』라는 주석이 적혀있다. 여기서의 다케시마는 울릉도(鬱陵島)를 말하며, 울릉도 우측 작은 섬은 독도(獨島)이다.

7. 삼국통람도설, 1785년, 52.5×7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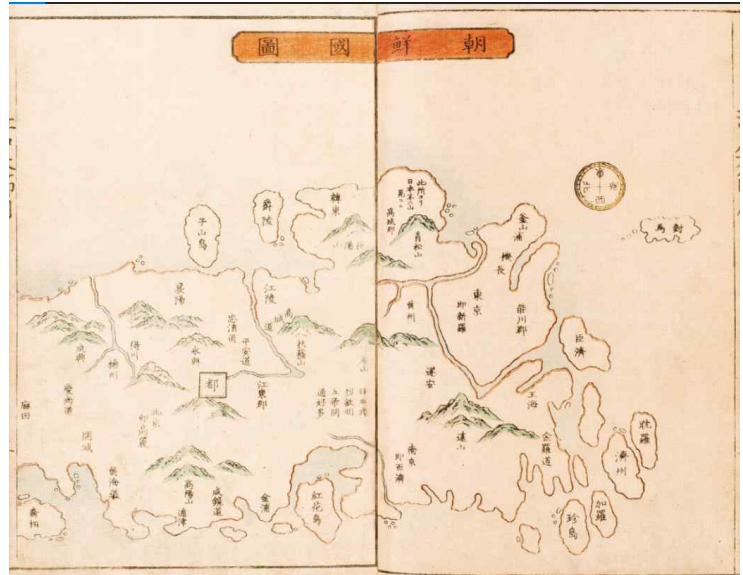
1785년 하야시 시헤이(任子坪)이 발간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안에 수록되어 있는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이다. 조선의 영토는 노란색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동해(東海)에 있는 울릉도(鬱陵島) 독도(獨島) 역시 노란색으로 채색했다. 울릉도는 일본이 호칭했던 다케시마(竹嶋)로 표기하고 좌측에는 “朝鮮ノ持之(조선의 것)”, 하단에는 “比島ヨリ隠州ヲ望又朝鮮ヲモ見ル(이 섬에서 은주를 바라보고 또 조선도 보인다)”라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의 기록을 표기하고 있다. 즉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는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 영역이 아님을 명백히 기록한 것이다.

8. 청조일통지도, 1835년, 62×6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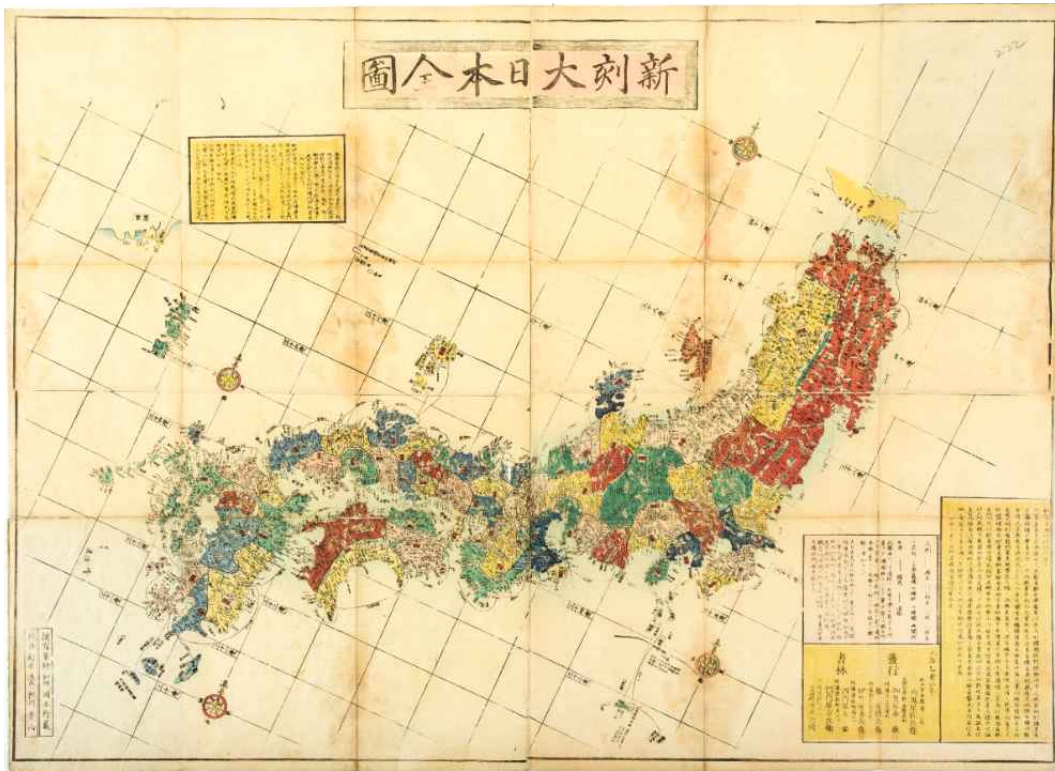
청나라 진송정(陳松亭)이 그린 지도를 모본으로 일본의 세이타이엔(靑苔園)이 1835년에 제작한 지도이다. 조선의 영토에는 고려 백제 신라 등의 명칭도 보이며, 동해(東海)에는 울릉도(鬱陵島)와 자산도(子山島: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나타내고 있다. 에도 막부 시절 일본의 영토 인식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9. 강호대절용해내장(江戸大節用海内蔵), 1863년, 19×2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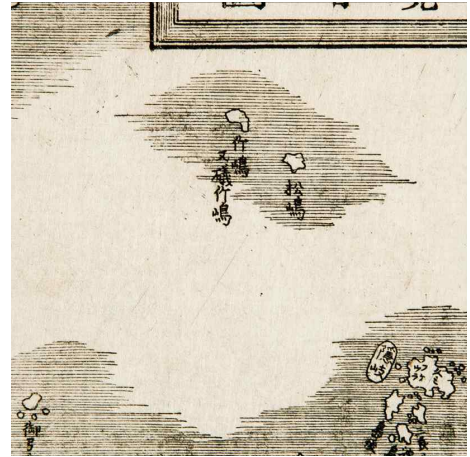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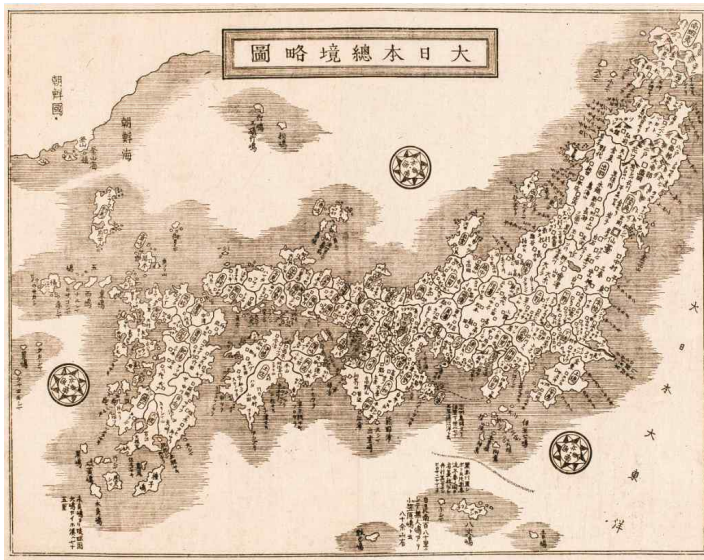
1704년에 초판이 발간된 강호대절용해내장(江戸大節用海内蔵)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저자는 모리 후사이(森楓素)이다. 에도시대 발간된 대표적인 민간 백과사전으로 일본의 다양한 정보와 함께 조선국도(朝鮮國圖)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국도에는 울릉도(鬱陵島)는 ‘작릉(爵陵)’으로, 독도(獨島)는 ‘자산도(子山島)’로 나타내면서 조선국(朝鮮國)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다.

10. 신각대일본전도. 1864년, 107×7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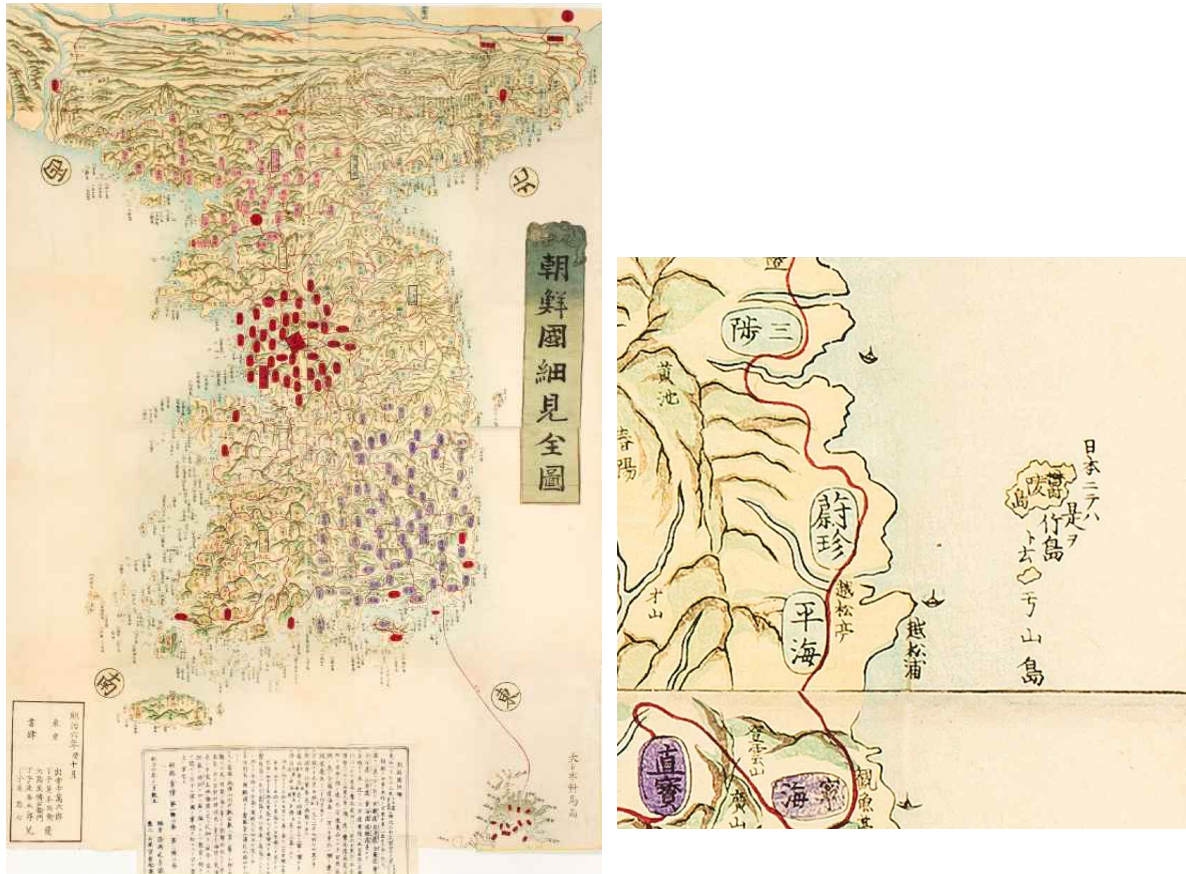
1864년 일본의 야마시로 야사(山城屋佐)가 제작한 일본전도(日本全圖)로 1779년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제작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를 계승하고 있다. 먼저 경위선(經緯線)을 표시한 대형 지도라는 점, 동해(東海)의 울릉도(鬱陵島:竹島 一云 磯竹島)와 독도(獨島:松島)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울릉도 우측에 “見高麗猶望雲州隱州”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見高麗猶望雲州隱州”은 고려(조선)가 보이는 것이 마치 운주(雲州=이즈모出雲)에서 은주(隱州=오키隱岐)를 보는 것과 같다고 기록한 『은주시청합기』 권1의 국대기(國代記)에 나오는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즉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나타낸 것이다.

11. 대일본국세도, 1866년, 11×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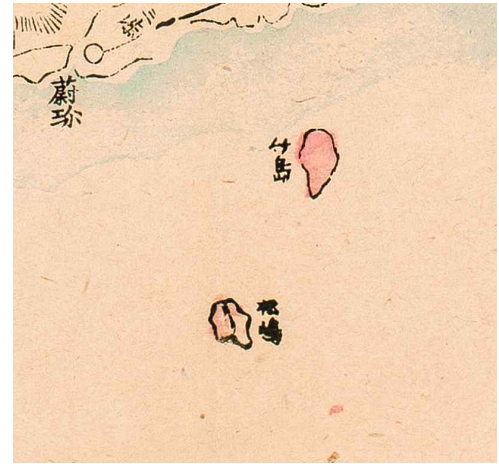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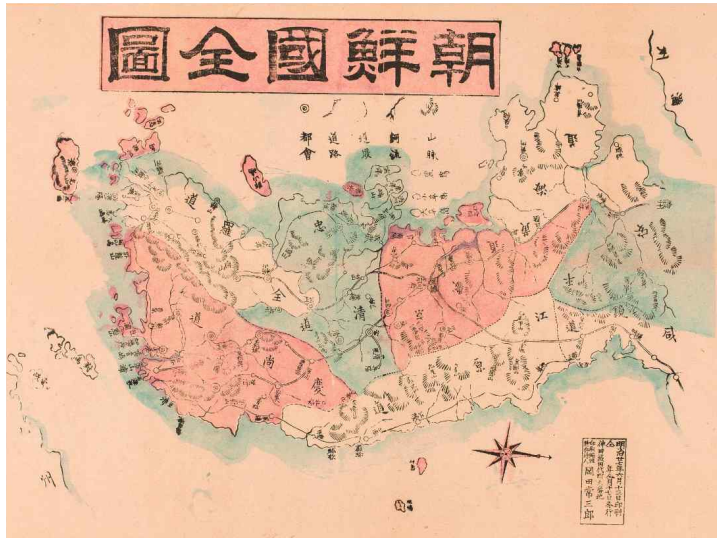
1866년 에도시대 말기에 제작된 『대일본국세도』에 수록된 “대일본총경략도(大日本總境略圖)”이다. 후지와라 아사로(藤原朝呂)가 제작한 지도로 동해(東海)는 조선해(朝鮮海)로 분명하게 표기하였고, 울릉도(鬱陵島)는 죽도(竹島: 一云 磯竹島)로 독도(獨島)는 송도(松島)로 표기하여 조선의 영토임을 나타내고 있다.

12.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 1873년, 105×7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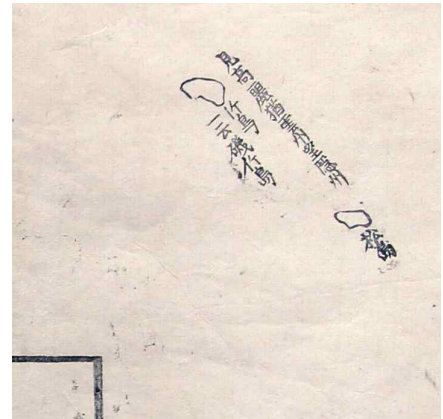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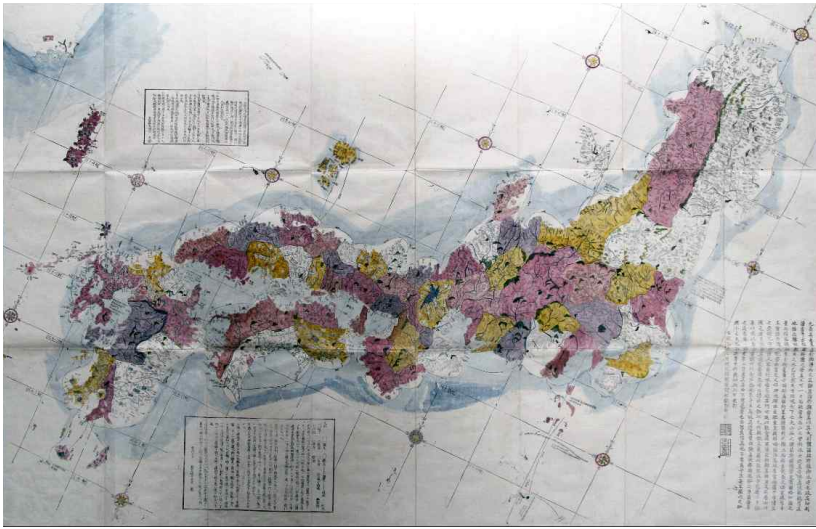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는 1873년 소메자키 노부후사(染崎延房)가 제작한 조선국(朝鮮國) 전도(全圖)이다. 소메자키 노부후사는 에도시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글을 쓰던 작가(作家)였다. 이 지도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와 유사한 형태로 조선팔도의 군현과 주위 섬들을 상세히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울릉도(鬱陵島)와 우산도(于山島: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나타내면서, 울릉도 우측에 “일본에서는 이를 죽도(竹島)라고 부른다” 라고 부기(附記)하고 있다. 또 하단에는 “울릉도는 궁송도(弓嵩圖)라 부르며 강원도(江原道) 소속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3. 조선국전도, 1894년, 56×3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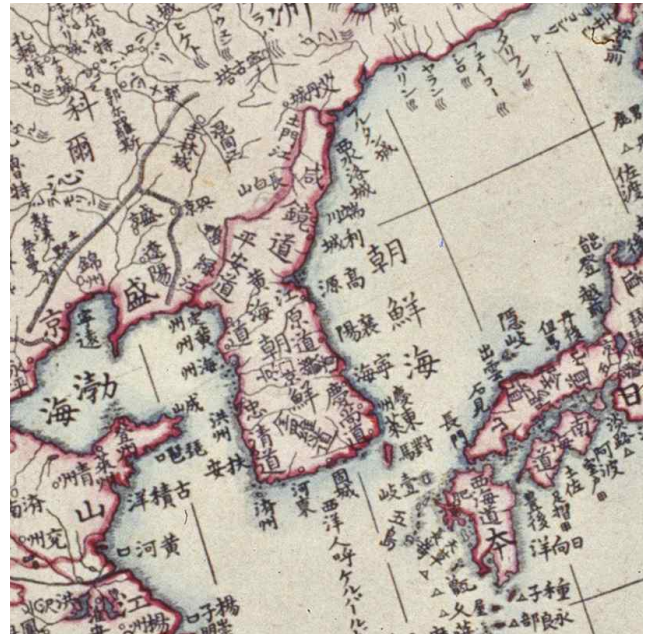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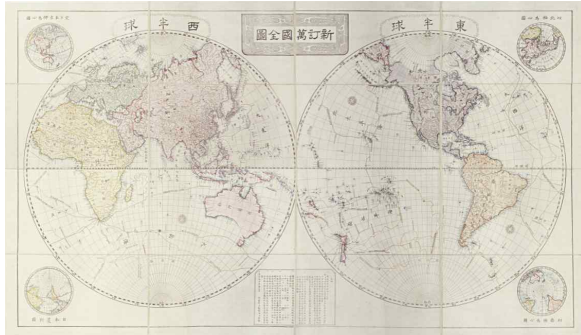
청일전쟁(淸日戰爭)이 일어났던 1894년에 제작된 지도로 제작자는 오카다 쓰네사부로(岡田常三郎)이다. 명칭은 조선국전도인데 북부지방 일부는 그리지 않았다. 울릉도(鬱陵島)는 죽도(竹島)로, 독도(獨島)는 송도(松島)로 표기하며 조선의 영토로 나타내고 있다. 메이지(明治) 정부 시기에도 에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울릉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4. 신각 일본여지로정전도, 19세기, 128×8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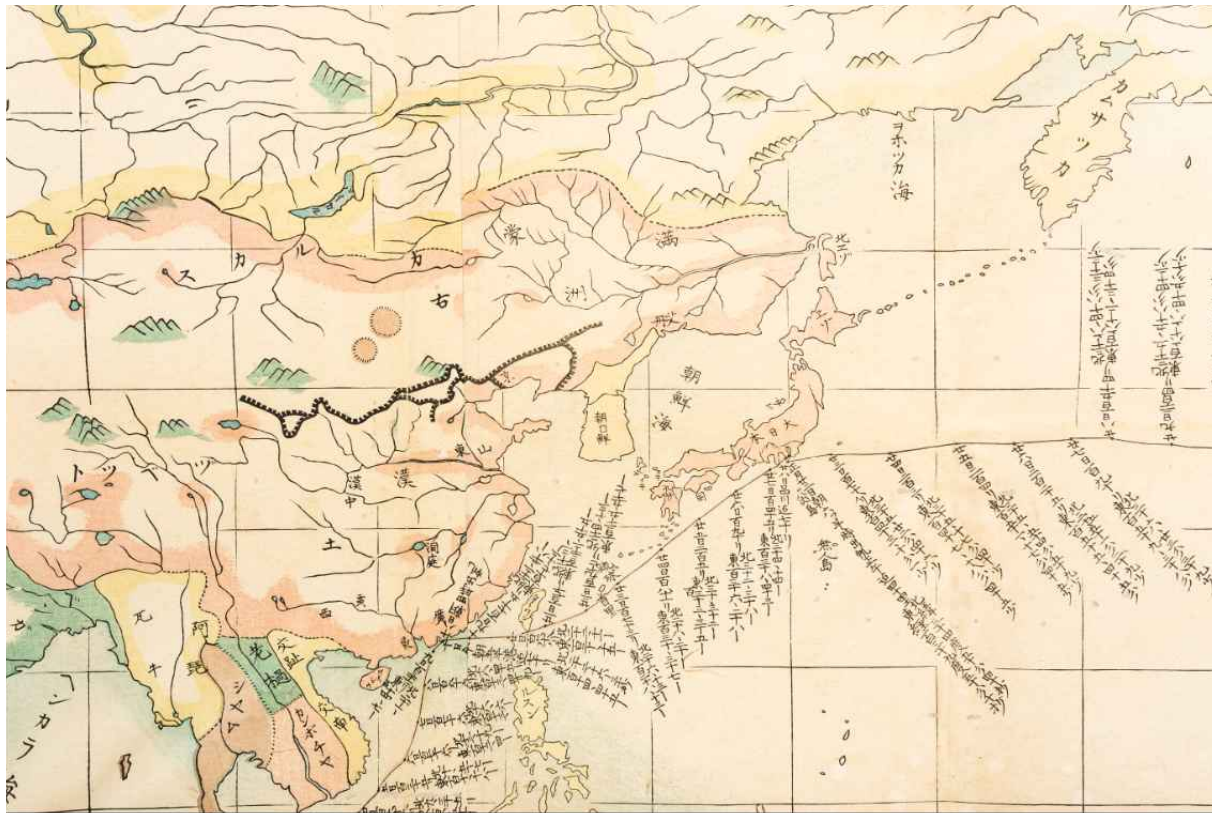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제작된 일본전도(日本全圖)로 1779년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제작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를 계승하고 있다. 약 100년전에 제작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지도에 이후의 새로운 정보를 수록하여 제작하였기에 ‘신각(新刻)’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위선(經緯線)을 표시한 대형 지도라는 점, 동해(東海)의 울릉도(鬱陵島:竹島 一云 磯竹島)와 독도(獨島:松島)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울릉도 우측에 “見高麗猶望雲州隱州”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원 지도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 지도 역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15. 신정만국전도, 1810년, 199×114cm



1810년 에도 막부의 측량소(測量所) 관리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가 제작한 관찬(官撰) 세계지도로 영국을 비롯한 서양의 지도를 번역하여 만든 양반구도(兩半球圖)이다.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한반도 동쪽 바다를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하여 조선의 바다임을 보여주었다. 에도 막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지도였기에 이후 일본에서 만든 지도에는 조선해(朝鮮海) 표기가 지속되었다.

16. 환해항로신도(環海航路新圖), 1862년, 183.5×101cm



환해항로신도(環海航路新圖)는 에도시대 末 의사(醫師)였던 히로세 호안(廣瀬保庵)이 제작한 세계지도이다. 그는 1860년에 에도 막부의 제1회 견미(遣美)사절단 의사 자격으로 세계항해를 마친 후 이 지도를 제작하였다. 지도를 보면 견미사절단이 일본에서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 대서양, 아프리카를 경유하여 귀국하기까지의 경로와 날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항해기(航海記)인 만큼 전세계 바다 이름도 상세히 적고 있는데, 동해(東海)는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하여 조선의 바다임을 분명히 하였다.